

The 가까운 자치경찰! The 안전한 경남도민!

2023. 5.9.(화) 조간

위원회 주요보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경남자치경찰위, 전국 첫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10월까지 초교 10곳 500명 대상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처음으로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의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이 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10곳 4-6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3월 통영초등학교에 시행된 면허시험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학기 중에 해당 학교로 자



지난 4월 시행된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모습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거 전문 강사들이 찾아가 면허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면허시험은 △보호구 착용의 필요

성 △수신호 방법 △횡단보도 건너는 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내용 숙달을 위한 실기시험 순서로 이뤄진다. 시험에 합격한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한편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헬멧을 제공해 안전용품 착용 생활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태 경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은 도내 어린이가 교통사고는 감소하나, 어린이 자전거 사상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경남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19.2 X 8.4 cm

경남도내 유통 농·임산물 '안전합니다'

봄철 다소비 농산물·식약공용 국내산 농·임산물 검사 모두 '안전'



농산물 검사모습. /경남도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다소비 농산물 및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하여 중금속 및 잔류농약에 대해 검사한 결과 대부분 적합 판정을 받아 도민들의 봄철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이후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면서 더욱 정밀

한 검사 능력이 요구되었고, 이에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최첨단 분석기기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미량의 농약 성분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지난 3월 테마별 농산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함안군)에서 수거해 온 봄철 다소비 농산물(미나리, 시금치 등)

20건에 대한 잔류농약 460종과 중금속(납, 카드뮴) 검사에서 모두 불검출 및 허용기준치 이하로 적합하였다.

또한 4월에는 농·임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식약공용 농·임산물 중 주요 부적합 품목 위주로 밀양시, 하동군 등 4개 시군에서 수거하여 의뢰한 오가피, 두충, 석장포, 치자 등 20건에 대한 잔류농약, 이산화황 및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비소)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허

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창원내서 및 진주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한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약 1,28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6건(부추 2건, 방아, 고춧잎, 시금치, 오이 각 1건)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99.5%가 적합하였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진량 압류·폐기하도록 관계 기관 및 전국 시·도 행정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고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원은 도 및 시·군과 함께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를 위해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 및 기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창원내서농산물검사소는 창원, 김해 등 중·동부 경남 8개 시·군, 진주농산물검사소는 진주, 사천 등 서부 경남 10개 시·군의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경자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 연구부장은 "여름에는 새로운 제철 농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cwt6000@gndomin.com

22.0 X 20.4 cm